

성소의 작은 씨앗이 자라난, 김영선수녀입니다. 제가 성요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담임이셨던 양노린 수녀님이 어느 날 우리 반을 모두 데

리고 강진 천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성당에 가 보았고, 중3 때부터는 주일 미사에 나갔습니다. 고 등학교 1학년 때 김남순 수녀님의 예 비자 교리반에서 공부하고 그 해 성

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1975년 마더 씨튼이 시성된 해에는 문말린 수녀님이 졸업생인 제게 성녀 엘리사벳 씨튼 전기를 보내주셔서 열 심히 읽고 <성녀 엘리사벳 씨튼께 드리는 기도>를 일기장에 적어 두고, 성녀처럼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 골롬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1981년 2월에 입회했고, 1984년 9월 첫서원을 했습니다. 첫 파견지인 성요셉 여학교에서 종교주임과 양호교사로 수업을 맡았는데, 학생들의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장소로 기억합니다. 수도자로서 간호사로 일한 적도 있지만, 성소담당, 청원장, 수련장, 유기서원장 등 주로 양성관련 사도직에서 동반하는 수녀님들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저도 함께 성장하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기억나는 은총의 순간은, 한국관구장으로 봉사할 때 에콰도르에





서 선교하는 수녀님들을 방문하여 베드로 카르보 지역의 축제인 거리 행진에 참여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분수처럼 터져 나오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강한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수녀님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하느님 섭리에 의탁하는 믿음과 그곳 사람들이 나누는 삶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우리를 지탱하는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서 피정 사도직을 하면서, 우

리 수도회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모임인 씨튼동반회 네 그룹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흙을 일구어 씨앗을 뿌리고, 그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 첫서원 미사의 복음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며 수도 성소의 길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성소의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나는 조금씩 죽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자라도록 열매를 맺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I'm Sr. Kim Yong Son, the tiny seed scattered in Gangjin several decades ago, grew and later bore the fruit of a religious vocation.

When I entered St. Joseph Middle School, Sr. Noreen Lacey, my homeroom teacher, took all of us to Gangjin Catholic Parish. It was my first time encountering Catholics, and I began attending church as a middle

school senior.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I attended a catechism class taught by Sr. Kim Nam Sun and received the sacrament of Baptism at Christmas that year. In 1975 when Mother Seton was canonized, Sr. Marlene gave me a biography of St. Elizabeth Ann Seton, and I read fervently. Writing "The Prayer to St. Elizabeth Ann Seton" in my journal, I also used to pray to have a life of service, like her, for the Lord.

Working as a nurse at St. Columban Hospital, I entered in February 1981 and made my first vows in September 1984. My first mission was at St. Joseph Girls' School. I was a religion teacher in charge and nurse, and I remember it as a place of vitality and hope for students. As a religious, I once worked as a nurse; however, I became interested in the growth of our sisters through my ministries of vocation director, postulant director, novice director, and junior-professed director.

Accompanying the sisters in the formation period, I could also experience the grace of my own growth. A memorable moment of grace was when, as the Provincial, I made a canonical visitation of the sisters who are missionaries in Ecuador. It was the time of the festival in Pedro Carbo, and we participated in a street march with the local people. Seeing so many crowded people coming



out to the street with joy like the water in a fountain, it was a moment of an intense experience that God is with us everywhere and in any situation. My heart was heavy with concerns about the poor conditions there and for the safety of our sisters; however, it was a time to realize that trust in God's Providence and the pure joy of life shared by the people there are gifts that sustain us.

Now, ministering at Nonsan Retreat and Spirituality Center, I am accompanying four groups of Seton Companies comprised of lay people who want to live our spirituality passionately. Last spring, I dug up the soil, scattered seeds, and saw the flowers blooming. There I realized and felt the Word of God (Gospel),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just a grain of wheat; but if it dies, it produces much fruit." that reading, proclaimed during my first Vows Mass, is alive and breathing. Finding joy on the road of a religious vocation. It is God who bears fruit so that the seed of my vocation grows and bears fruits, so when I die, little by little, the life and love of the Lord will prosper in me more.

